목어 불교문화사업을 키우자

월드컵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축구경기일 뿐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 월드컵은 온 세계인이 즐기는 놀이문화가 되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놀 줄도 아는 존재이다. 우리 가요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란 가사도 있지만 정말 올바른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일과 더불어 삶을 즐기는 일도 필요하다. 즉 잘 놀아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다시 말해 여가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스포츠나 오락이 필요하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스트레스라 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들이 저마다 애쓴다. 스포츠를 즐기고 담배도 핀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환각제 같은 마약까지도 복용하다보니 중독이 되어 오히려 심신이 멍들고 만다. 성(性)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나치게 색(色)을 탐하면 역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친다.

정말 살맛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불어 놀며 즐기는 일이 필요하다. 속된 표현이지만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잘 노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문화와 예술이 잘 노는 일에 으뜸되는 존재이다. 문화와 예술은 그침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은 물이 샘솟는다. 그렇지만 참다운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도 레저문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막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등 사찰을 순례하고 나면 왠지 허전하다. 왜 그럴까. 어딜가도 똑같은 관광상품이 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요즈음에는 국산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물건들이 판을 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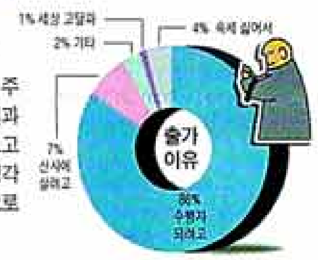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는 일. 그것이 문화산업이다.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불교문화산업을 진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불자의 생각

출가

붓다뉴스가 출가를 주제로 설문을 해 본 결과 수행자의 길을 가 보고 싶은 의욕이 출가를 생각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드러났다.



"'스님되고싶다' 생각한적 있다" 93%

90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에서 출가해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고백한 응답자는 93%에 이르는 84명이었다. 출가를 생각해 봤다는 응답자의 85%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어서' 라는 이유를 들었다. 산사에 살고 싶어서 출가를 생각해 봤다는 응답자는 6명(7%)이었고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라는 이유는 3명이, 실연 등 마음의 고통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단 한명이 답했다.

임연태 기자

불자 세상보기

自性의 힘으로 사이버테러 막자

김영조
영진전문대 교수
사회복지과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체계의 발전과 보급으로 지금 우리는 현실의 세계와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현실세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고착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시대흐름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인류사회에 큰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세계와 사이버공간의 세계라는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두 개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활동 범위와 비중도 현실 세계에서 점차 가상의 세계 쪽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제 가상의 세계인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양식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규범이 정립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특히 사이버테러 행위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채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불안과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이버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보안업체인 프리딕티브시스템은 3월 22일 지난해 4/4분기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30.9%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는 컴퓨터 통신망상에 구축되는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 행위로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공중(公衆)에 유포시킴으로써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며, 심지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악의적으로 공개하거나 욕설이나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여 인격이나 인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사이버테러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체를 말살하여 사람을 파탄케 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과 신속성의 영향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사이버테러는 어느 한 국가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점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그 폭력성에 있어서도 더욱 지능화되고 과격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도덕적·윤리적 규범성과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행위자의 죄의식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기구를 만들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 사이버테러를 근절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테러로 인한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사이버테러 행위를 자제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불교원리에 업감연기(業感緣起)라는 말이 있다.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업인(業因)에 의해 생긴다는 뜻이다. 범죄가 범죄를 낳고, 사이버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유발한다. 다른 사람의 사이버 테러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이에 보복적 테러를 가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자성(自性)의 힘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여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는 한편,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조계종 정체성확립과 진로

1962년 4월11일 출범한 조계종이 통합종단 4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범스님의 기조발제와 함께 김광식, 유승무, 심익섭 교수가 각 주제발표를 하며, 현고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현각스님(종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宗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필요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대한불교조계종이 가지산문에서 기원하며,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 태고국사를 중흥조로 한다는 등의 종지종통 표기는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즉, 대한불교조계종이 신라 하대에 개산된 가지산문에서 기원한다면 그 이전의 신라 중대 및 삼국시대의 불교사를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의국사에서 보우국사까지의 종통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통합종단은 종헌이 20여 차례 개정되는 등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종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우선 정체성에 대한 폭넓은 조명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종통(宗統)에 대한 관심보다 종체(宗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와 비교 연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수행 가풍이 모색돼야 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종단의 역량 강화도 종책차원에서 연구돼야 한다.

정화운동의 부정적 측면 성찰해야

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1962년 4월에 정식 출범한 통합종단으로서의 대한불교조계종의 등장은 근현대 불교사상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1955년 전국승려대회에서 가시화된 제반 변화 및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불교혁신운동 과정에서 나온 수행승 중심의 승단 재건정신이 구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일제 식민지 불교체제하에서 대두된 식민지불교의 극복 및 전통불교 수호 정신이 조계종단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통합종단 성립과 관련한 부정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합종단 성립에 공권력이 개입되고, 수좌중심의 승단으로 재편된 문제, 또 8년간의 정화운동사에서 나타난 부정적 측면 및 부산물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는 점 등은 종단 진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통합종단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다.

3대 종책사업 시대적요구 맞게 혁신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통합종단이 등장한 이래 '역경·포교·교육'의 종단 3대 종책에 대한 성찰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보니 모범적이지 못한 과거의 사업방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종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고려대장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포교역량이 확대됐으며, 승가교육체계가 정비되는 등의 성과도 적지않다.

그러나 포교분야에서는 종책사업이 포교환경 및 포교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행사나 업적 위주로 기획됐고, 교육분야에서는 기본교육기관들 사이의 관계가 혼란스럽게 방치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단의 3대 종책사업은 내적 혁신과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역경 및 포교 종책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교육 종책은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종무행정 전문·독립성 이뤄지길

심익섭(동국대 교수)

통합종단 출범 이후 종헌은 98년까지 22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력의 분권화는 계속해 이뤄졌다. 해방 후 50년대 말까지 지속된 도교구제(13교구)가 통합종단에서는 25교구본사체제로 정립됐고, 이에 따라 전통불교의 권위와 운영합리화를 위한 분권적 구조가 갖춰지게 됐으며, 종단운영도 상당한 수준으로 전문화됐다.

특히 1994년 개혁종단 출범은 그동안 누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정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최대 과제는 종무행정의 운영활성화와 전문화다. 종무행정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전문화된 종무행정'과 '직업인으로서의 종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승가 종무원의 역할에 대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또 종무행정이나 종책에 종도들이 참여함으로써 조직운영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해의 진주 변산반도 관음기도도량

내소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봉안식

◇ 내소사 전경 (흰선 부분이 신축한 관음전 모습)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원력으로 633년 혜구선사께서 창건한 내소사는 관음조(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의 전설로 유명합니다.

법당을 완공하자 화공이 단청을 하기위해 법당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단청을 다끝내고 나올때까지 이 안을 들여다 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도록 화공이 나오지 않자 호기심 많은 선우스님이 살짝 문을 열고 법당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화공은 없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오색영롱한 새(관음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스님을 보더니만 단청 한 곳을 못한채로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간 그 관음조는 능가산 중턱에 앉았는데, 그때 부터쯤 노스님이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스님을 관음조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며, 이후에도 암자에는 스님들이 살았으나 어느 때부터 암자는 폐쇄되고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암자터를 복원하여 관음전을 새로 지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갖게 되니 서해 진주 변산반도 능가산에 그 가피가 가득하고 사부대중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능가산 진달래 벚꽃은 관음의 미소요
좋달새 소쩍이 노래는 남순동자의 법문이라
멀리 바다의 긴 아지랑이 온 천지에 너울너울 춤을 추니
겹겹한 산봉우리 마다마다에 봄소식 미소가 가득하다네

회 주 : 우암 혜산
선 원 장 : 한벽 철산
주 지 : 진원 · 사부대중 합장

봉불식 안내
◇ 일 시 : 2002년 4월 13일 오전 11시(불기 2546년 3월 초하루) 토요일
◇ 장 소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관음전
◇ 연락처 : 063-583-3030(주지실) 583-7284(총무실) 583-7281(종무소)

법회안내
◇ 특별정진법회 (해안 대종사 추모재, 내소사 다례재, 전등회 참선 정진법회) : 음력 3월1일 - 3월7일
◇ 철야용맹 정진 및 천도재 안내 : 매월 2째주 토요일밤 9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 24교구 능가산 내 소 사